

교회소식

1. 오늘은 2021년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그린레인 장로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시설을 깨끗하게 잘 사용하여 함께 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3.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새로운 결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약속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4. 여선교회 연령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임원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여선교회 (기혼~74년)
 - 2 여선교회 (73년~67년)
 - 3 여선교회 (66년~63년)
 - 4 여선교회 (62년~56년)
 - 5 여선교회 (55년 이전)
5. 말씀묵상(QT)으로 성도 간의 교제와 신앙성장을 바라는 성도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신청 담당: 김영아 집사).
6. 제한된 시간 관계로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7. 수요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January

교회사역일지

- 1월 2일(주일) 신년 주일
- 1월 9일(주일) 성찬 주일
- 1월 22일(토) 전교인 야외 예배
- 1월 23일(주일) 제직 예배

기도순서

- 1월 2일 (주일) 김병진 목사
- 1월 5일 (수) 가정 예배
- 1월 9일 (주일) 박병민 장로
- 1월 12일 (수) 가정 예배

예배봉사자

- 예배 안내 김창조, 김명옥
-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 주차 안내 민광호
-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211 Great South Rd,
Greenlane,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송년 주일

23권 52호 2021.12.26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 주일 1부 예배 11:30 am
- 청년찬양예배 2:00 pm
- 유아부 11:30 am
- 아동부 11:30 am
- 청소년부 11:30 am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기도 7:00 pm

섬기는 사람들

- 담임 목사 이태한
- 부 목사 이성훈
- 전도사 김양이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인도자
✳찬송	-----	다함께
✳참회의기도	-----	다함께
✳신앙고백	-----	다함께
찬송	-----	다함께
대표기도	-----	이정인 집사
성경봉독	-----	인도자
찬양대찬양	-----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	이태한 목사
찬송	-----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	다함께
✳응답송	-----	다함께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중앙아시아 K국 강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금 기차를 타고 KO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바깥은 끝도 없이 펼쳐진 눈 덮인 광야입니다. 기차 실내는 따뜻하고 뜨거운 물이 제공됩니다. 제가 있는 침대칸에는 세 명의 남성과 남자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26시간을 가는 저보다 더 멀리 가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친절할 분들이어서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 교회는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모두 함께 집을 청소하고 커튼을 달고 싱크대를 설치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여기저기 수리하고 고칠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공간이 생겨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공간을 가진 기념으로 AL도시에서 K국 언어로 노래를 만들고 찬양하는 Z자매와 그 남편을 초대, 3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그녀의 간증과 찬양을 통해 모두가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손을 들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Ay의 생일: 동료 선교사 E와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다가 저희 교회에 오기로 결정한 Ay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악몽, 환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악몽과 누군가의 목소리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Ay가 얼마 전에 집에서 나와 독립을 했는데 자신의 생일이라고 저와 E선교사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남자 친구도 와서 함께 축하하며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12월입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이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기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간구 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나하르 드림

기도제목

1. KO도시에서 머무는 동안 풍성하고 은혜로운 만남, 시간이 되도록.
2. Ay가 악몽과 환청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예배 시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도록.
2. 믿음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성탄 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도록.
3. 온전한 예배 장소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4.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5.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도록.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나눔란

2021년 12월 19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기다리는 자는 만난다> 누가복음 2:25-35

일상은 많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기다림 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므온을 통해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1)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기다리기(25):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나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신실한 삶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지위나 나이가 아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의로운 것이며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므온이 살던 시대에는 경건하게 살기 어려웠던 이방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요 17:16). 시므온과 달리 오늘 우리는 아무런 믿음의 노력도 갈등도 없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우상을 숭배한 왕의 기름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단 1:8). 이민자인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포로의 상황에서 18세 어린 나이에도 의롭고 경건하게 산 다니엘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로마의 핍박으로 많은 위로가 필요했던 시대에 시므온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사 66:13). 사람의 일시적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사 40:1) 소망합니다.

2) 성령의 사람으로 기다리기(25): 시므온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았기에 성령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26).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된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시므온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실화인 것만큼 예수님의 재림도 잠시 잠깐 후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히 10:37). 시므온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진리를 깨닫고 기쁨과 확신으로 채워져 비로소 세상 유혹과 죄와 거짓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갈 5:25) 기억하며 육신을 입고 살아도 영적 통찰력으로 가득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성전 중심으로 살며 기다리기(27): 시므온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우연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의 살았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 본 시므온은 “주여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은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라며 찬송했습니다(29).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의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빌어 사람같이 되신 성탄의 신비는(빌 2:7) 모든 사람을 위한 섭리입니다. 아기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 간절히 기다리는 자 모두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에도 시므온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한 성전 중심의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